

'공짜 미국여행에 흑해 3번 도전'....페이스북 첫 토종 한국인

'14억명 쓰는 폐북 쥐락펴락' 홍민성 페이스북 SW엔지니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머니투데이 김은혜 기자 | 입력 : 534813943#3 : 33

편집자주 | 편집자주: 평범하지만 남다른 스토리를 가진 실리콘밸리인들이 직접 한국의 청년들을 찾았다. 왜? 자신이 겪은 실패와 도전의 경험을 나누고 누군가의 변화를 격려하기 위해. 글로벌비영리 청년역량강화단체 넷임팩트코리아와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알럼파이(Alumfi)가 지난달 25일, 27일, 28일 서울, 경기 여주, 인천에서 개최한 '실리콘밸리인' 토크콘서트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은 물론 중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사진제공= 경기e조은뉴스(위클리조은뉴스·방송)

"사무실에서 마크 저커버그를 수시로 마주친다면 기분이 어떨까."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게 아직도 신기하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홍민성씨(26)에겐 일상적인 일이다. 홍씨는 비유학파 출신으로 페이스북 본사에 처음 입사한 토종 한국인이다.

홍씨의 초등학교 시절은 국내에서 막 PC가 보급되던 시기였다. 홍씨는 여느 아이들처럼 타자 빨리치기, 지뢰찾기 게임을 즐기고, 방과후 수업에선 나모 웹에디터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PC를 갖고 놀다보니 정보올림피아드대회에 출전하고 싶어졌고, 토요일마다 6시간씩 학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이전엔 TV를 보며 의미 없이 보내던 주말을 프로그래밍의 재미에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르고 보냈던 것 같아요."

홍씨는 대학(KAIST)에서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취미가 프로그래밍인 '공대 아름이'였던 셈이다. 그는 학부 졸업을 한 한기 남겨두고 그에게 달콤한 성공과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안겨준 구글 코리아 인턴십에 도전했다. 코딩면접을 무난히 통과해 그는 당당히 인턴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하면서 첫 실패를 맛보아야했다. 췌트 바퀴 돌듯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회사생활은 즐겁지 않았던 게 결정적 요인이었다. 직장인으로 조직생활을 계속할지 공부를 더 해야할지 그의 고민은 깊어졌다.

고민 끝에 "좀 더 능력있는 사람이 되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 결론을 내린 홍씨는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영어공부를 병행했다. "내가 활동할 무대는 한국이 아닌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영어공부 또한 열심히 했고 박사과정은 반드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와 페이스북의 인연은 대학 4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짜로 미국여행 한번 가보겠다'는 작은 욕심에서 시작됐다. 사실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여성 공학자들은 흔치 않은 존재다. 대학 4학년 때 그는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여성 컴퓨터공학자 학회인 '그레이스호퍼 컨퍼런스' 공고를 접했다. 페이스북이 여성 공학자들을 선발해 이 학회에 참가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고, 그는 여기에 도전한다. 학회참석보다는 공짜 미국여행이 구미를 당겼다.

첫 번째 지원에서는 '아쉽게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오기가 생겼다. 그는 이듬해 또 지원했다. 하지만 또 다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포기하지 않고 세번째 도전에 나섰고, 그는 마침내 합격통보를 받아냈다.

미국에서 컨퍼런스에도 참여하고, 페이스북 직원들과 함께 관광과 세미나를 하는 등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행운도 찾아왔다. 페이스북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을 볼 의향이 없는지 제안을 받은 것.

"내가 과연 영어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안돼 못할거야라는 생각에 주저했다. 그 때 세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OO의 패널 토크가 떠올랐다. '두려울 것이 없다면 무엇을 할텐가'."

무사히 영어인터뷰를 마쳤고, 홍씨는 두번째 코딩면접에 임했다. 문제는 'N개의 수가 있을 때 K번째 큰 수를 찾는 방법은'이었다. 그는 "저 이 문제 알아요. 인터넷에서 봤어요"라고 당돌하게 대답했다.

사실 입사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딱 귀국 일주일후 그는 입사통보를 받았다. 2014년 10월의 일이다. 현재 홍씨는 검색 인프라팀에서 SW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전세계 14억명이 사용하는 소스코드를 내가 직접 짜고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짜릿함으로 하루 하루 즐겁게 일한다. 내가 하기 싫고 못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잘 안되더라.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는 청년들에 조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52810560372465&type=1>